

중국 개혁기 공간생산 지식의 내용과 지형: 심양시(瀋陽市) 철서구(鐵西區) 노후공업기지의 개조를 중심으로

박철현(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목차

- I. 서론
- II. 동북 노후공업기지 개조와 철서구의 공간변화
 - 1. 철서구의 역사
 - 2. 동북 노후공업기지 개조의 배경과 과정
- III. 개혁기 공간생산 지식의 변화와 학계
 - 1. 학술지와 개혁기 공간생산 지식
 - 2. 동제대학 성시발전전략관리연구원
- IV. 지방정부의 공간생산 지식과 그 전파
 - 1. 노후공업기지 개조의 전략: “동반서진”과 “합서판공”
 - 2. 지방정부의 공간생산 지식 전파
- V. 연구기관의 공간생산 지식
 - 1. 심양시 계획설계연구원
 - 2. 「심양철서신구전략발전계획연구(瀋陽鐵西新區戰略發展規劃研究)」
- VI. 결론
- 참고문헌

I. 서론

공간생산(production of space)이란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가 그의 저서 「공간의 생산(The Production of Space)」¹⁾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르페브르는 공간의 사회적 성격에 주목하여 특정 사회와 생산양식(production of mode)은 그것에 고유한 공간을 생산한다고 보았다. 그는 공간을 단지 해석해야 할 메시지나 텍스트(text)로 보는 관점을 비판하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생산이라는 인간의 실천적 행위에 주목하여 공간을 생산과정으로 인식해야 비로소 자본주의적 공간생산의 역동성을 분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²⁾ 따라서 그는 사회적 생산의 결과인 특정한 공간형태 보다는 그러한 특정 공간이 생산되는 사회적 생산의 과정에 주목했다. 그는 특히 자본주의적 사회적 공간을 생산하는 과정에 연구를 집중하여 이러한 자본주의적 공간이 생산되는 계기를 3가지로 나누어, 공간적 실천, 공간의 재현, 재현의 공간으로 개념화하였다.³⁾

이 논문에서는 공간의 사회적 생산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개혁기 중국 동북지역 노후공업기지(老工業基地)의 개조의 문제를 살펴본다.⁴⁾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동북진흥(東北振興)” 정책의 주요 내용의 하나로 노후공업기지 개조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지역의 대표적인 노후공업기지인 심양시(瀋陽市) 철서구(鐵西區)의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개조가 진행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철서구 노후공업기지의 개조가 “동반서건(東搬西建)”과 “합서관공(合署辦公)”이라는 전략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공간생산의 방식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개혁기의 공간생산 과정에서 공간생산의 주체들에 의해서 담론적 정당화가 이뤄지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공간생산의 담론적 정당화가 지식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노후공업기지의 개조를 둘러싸고 공간생산의 주체들이 투사하는 지식의 유형과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간생산 지식을 투사하는 주체들을 학계, 지방정부, 연구기관으로 구분하고, 이들 주체들이 철서구 노후공업기지의 개조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공간생산 지식은 무엇이고 주체들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분석한다.⁵⁾ 사실 학계, 지방정부, 연구기관

1) 이 논문에서는 프랑스어 원본 Lefebvre, Henri. La production de l'espace. Paris, Editions Anthropos, 1974의 영어 번역본인 Nicholson-Smith, Donald. The Production of Space,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1992와 한글 번역본,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서울: 에코리브르, 2011을 참고했다.

2) 김남주, 「차이의 공간을 꿈꾸며: 『공간의 생산』과 실천」, 『공간과 사회』, 2000년 통권14호, pp. 64-65.

3) 3가지 개념에 대해서는, Nicholson-Smith, Donald. The Production of Space,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1992, pp. 33-38을 참고.

4) 르페브르의 공간생산은 기본적으로 현대자본주의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이지만, 중국이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벗어나 시장경제로 이행하고 있고 급속한 도시화와 함께 공간변화에 국가와 자본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간생산의 개념을 중국에 적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절하다. 중국학자들 사이에서도 개혁기 이전과는 달리 국가와 자본이 이윤추구라는 관점에서 급속히 공간을 재편해나가는 현실을 공간생산 개념을 사용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논문은 쉽게 찾을 수 있다. 葉超 柴彥威 張小林, 「“空間的生產”理論研究進展及其對中國城市研究的啓示」, 『經濟地理』, 2011년3월, pp. 409-413. 魏偉, 「政治經濟學視覺下的中國城市研究:資本擴張空間分化和都市運動」, 『社會』, 2007년2월, pp. 90-103. 任平, 「空間的正義」, 『城市發展研究』, 2006년5월, pp. 2-4. 魏立華 閔小培, 「有關“社會主義轉形國家”城市社會空間的研究述評」, 『人文地理』, 2006년4월, pp. 7-12.

5) 르페브르가 지정한 공간생산의 세 가지 계기 중 하나인 “재현의 공간(representation space)”은 기술관료나 도시계획가와 같은 공간생산 주체들에 의한 “공간의 재현(representation of space)”인 “지배적” 공간생산에 대해 “저항적” 공간생산이 이뤄지는 것을 말하는데, 중국의 경우 국가와 자본의 주도에 의한 재개발계획에 대하여 자신의 토지사용권을 지키고자 하는 “정자호(釘子戶)”를 이러한 재현의 공간을 생산하는 주체로 볼 수 있겠으나, 이 논문에서는 국가(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그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학계와 연구기관을 공간

은 노후공업기지의 국유기업들을 개조하는 공간생산의 주체이면서 관련된 공간생산 지식을 투사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들의 공간생산 지식은 단지 지식영역에 머물지 않고 노후공업기지를 개조하는 이들 스스로의 활동에 동원되는 지식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심양시 철서구의 역사를 개괄한 후, 개혁기 동북 노후공업기지 개조의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고, 동북지역 특유의 “전형단위제(典型單位制)”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본다. 2장에서는 공간생산 지식을 투사하는 주체로서 학계를 상정하고, 우선 철서구로 대표되는 노후공업기지 공간생산과 관련하여 학술지에서 나오는 논문을 분석하여 개혁기 도시의 공간생산과 관련하여 인문지리 및 공간생산 지식의 변화를 추적한다. 다음으로는 상하이 동제대학(同濟大學) 도시발전전략관리연구원(城市發展戰略管理研究院)이 제출한 「심양성시발전전략규획총보고(瀋陽城市發展戰略規劃總報告)」를 통해 개혁기 심양의 공간생산과 관련하여 학계가 투사하는 공간생산 지식을 분석한다. 3장에서는 공간생산 지식을 투사하는 두 번째 주체로서 지방정부를 상정하고, 동북진흥(東北振興) 정책이 본격화된 2003년을 전후한 시기에 심양시와 철서구의 당정 고위간부를 역임한 동평(董峰)과 구춘리(谷春立)의 언론 인터뷰, 정책보고서, 학술논문 등을 분석하여 이들이 추진한 “동반서진”과 “합서관공”과 같은 개조전략을 “공간이전(space displacement)”을 통한 공간생산의 지식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철서구 공간생산의 특징으로 파악한다. 다음으로는 공간생산 지식의 교류와 전파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개조전략이 몇 가지 방식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노후공업기지 개조에 “모범적 사례”로 활용되는 사실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살펴본다. 4장에서는 공간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마지막 행위자로서 연구기관을 상정하고, 심양시 규획설계연구원(規劃設計研究院)이 연구기관으로서 심양시 정부 및 철서구 정부의 노후공업기지 개조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진행한 과정을 개괄한 후, 이들이 펴낸 관련 정책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공간생산 관련 지식이 투사되는지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서론에서의 문제의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본문에서 공간생산 과정에 참여한 세 가지 행위자들이 투사한 관련 지식의 지형을 정리하고, 향후 이들 주체와 부동산 개발 관련 기업 사이에서 형성된 공간생산 지식의 전파와 교류의 네트워크를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II. 동북 노후공업기지 개조와 철서구의 공간변화

1. 철서구의 역사

1906년 8월 러일전쟁 승리 후, 일본은 포츠머스 조약으로 러시아로부터 남만주철도를 접수하고 동년 12월에는 남만주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련(大連)과 장춘(長春)을 잇는 철도의 권익을 확보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철로용지를 철로부속지로 바꾸어 대련과 장춘 사이의 광대한 영토를 사실상 점유하고 철로의 동쪽은 시가지로 하고 서쪽은 공업지대로 확정하여 1913년부터 “철로의 서쪽(鐵西)”에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1931년 만주사변이 발생하기 전까지 일본자본이 투자한 28개의 공장들이 들어서게 된다. 이 지역이 철서구로 확정된 것은 1938년 1월1일인데 이후 1945년 일본 패망 때까지 철서구는 침략전쟁을 위한 군수공업과 중화학공업 중심의 일본자본의 공장들이 밀집된 공장지역이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1951-1960년 시기 소련이 지원한 “156공정(工程)” 중 동북지역에서 54개 공정이 실시되었고 그 중 24개가 요녕성에 집중되었고 그 중 3개가

생산의 주체로 한정하고, “저항적 공간생산”의 주체와 그들의 지식에 대한 분석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한다.

철서구에 자리 잡았다. 1953-1957년의 “일오(一五)” 기간 동안 철서구는 기계제조업 중심의 공업도시로 “신중국” 건설의 기반이 되는 중화학공업의 중심지역이 되었으며, “이오(二五)” 기간에는 전국의 중점공업기지 건설 예산의 6분의 1이 투입되어 철서구는 장비제조업을 기초로 하는 국유기업과 관련설비가 잘 갖춰진 중국 최대의 공업기지가 되었다. 이후 1980년대 개혁기 초기까지 철서구는 중화학공업 위주의 중대형 국유기업과 소속 노동자들이 존재하는 사회주의 중국을 대표하는 존재로 남았다.⁶⁾

1절에서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과 사회주의 시기, 그리고 1980년대 개혁기 초기까지 철서구의 역사를 개괄해보았다. 다음의 2절에서는 철서구 개조의 배경이 되는 동북진흥정책이, 2003년 12월 국무원에 원자바오(溫家寶)를 조장으로 하는 “진흥동북지구등 노후공업기지영도소조(振興東北地區等老工業基地領導小組)”가 성립된 후 본격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겠다.

2. 동북 노후공업기지 개조의 배경과 과정

상술했듯이 동북지역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을 집중하여 석탄, 철강, 자동차, 기계장비, 석유화학 등 기초산업 위주의 중화학공업기지를 건설하였고, 1950, 60년대에 이 지역의 경제는 고속성장하여 전국적인 범위에서의 경제적 지위는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개혁기에 들어서 탈사회주의 경제체제로의 이행에 적합한 구조전환이 지연되어 동북지역의 경제는 성장이 정체되기에 이르고 전국적인 범위에서의 경제적 지위도 하강하기 시작한다.⁷⁾ 이 지역의 경제성장이 정체된 것은 중대형 국유기업이 탈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로, 시장경쟁력이 약화되어 생산을 중지하자 노동자들은 실업을 겪게 되었고, 정부의 재정수입은 감소하고 생활수준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체제전환의 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경우 지역경제에서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국유기업의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서 시장경제도 비교적 빨리 발전했으나, 동북지역의 경우 국유기업 그 중에서도 중대형 국유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국유기업의 개혁이 진행되지 않으면 시장경제도 발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 국유기업 개혁의 문제는 지역 경제발전에 근본적인 제약이 된 것이다.⁸⁾

이러한 동북지역 노후공업기지의 역사적 배경을 기초로 개혁기 노후공업기지의 개혁과정을 살펴보자. 동북지역은 개혁기에 들어서도 줄곧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특징이 두드러진 곳이었다. 1984년에는 공장장책임제(廠長責任制)와 목표책임제를 실시하고, 1986년에는 경영승포책임제(經營承包責任制)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등 일련의 국유기업 개혁조치를 실시하여,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강화되고 동시에 노동자의 지위는 약화되어갔지만, 여전히 중대

6) 李翔, 『共和國記憶60年:成長地標』, 中信出版社, 2009, pp. 43-46. 사회주의 중국을 대표하는 중화학공업과 소속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존재로서의 철서구라는 이미지는 이러한 관방의 공식통계와 주장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를 생활했던 노동자들의 기억에도 과거의 자부심으로 강하게 남아있고, 철서구 공인촌(工人村) 가도판사처(街道辦事處) 웹사이트의 공인촌문화(工人村文化) 게시판에는 이러한 기억들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는 공인촌 주민들의 글이 올라와있다.(www.gongrencun.com)

7) 동북지역의 2차 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57년에 26.5%에 달하던 것이 1978년에는 17.9%, 동북 진흥정책이 시작되기 직전인 2001년에는 10.8%로 하강한다. 李向平 王希文 陳萍 等, 『通向復興之路:東北老工業基地振興政策研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8, p. 59.

8) 2001년에 국유공업기업 및 국유지주회사 산하 공업기업의 자산총액이 연(年) 영업수익 500만 위안 기업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흑룡강 87.2%, 길림 86.2%, 요녕 78.2였고, 2002년에 이러한 기업들의 부가가치가 연(年) 영업수익 500만 위안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흑룡강 89.3%, 길림 77.8%, 요녕 62.9%로 전국평균 52.8%에 비해 확실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國家統計局, 『中國城市統計年鑑』, 2001, 2002年.

형 국유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개조가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2002년이 되면 심양시 당위원회 결정으로 철서구와 심양경제기술개발구(瀋陽經濟技術開發區)가 합병을 통해서 철서신구(鐵西新區)가 된다. 이후 2004년부터 본격화된 동북진흥정책으로 이전 사회주의 시기의 상징이었던 높이 100미터에 달하는 3개의 굴뚝을 철거하는 것을 시작으로 철서구의 중대형 국유기업의 철거이전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국유기업 개혁이 시작되었다. 2007년에는 국무원에 의해서 “노후공업기지조정개조및장비제조업발전시범구(老工業基地調整改造暨裝備製造業發展示範區)” 칭호를 받고 노후공업기지 개조와 진흥의 시범지역으로 결정되었으며, 2009년이 되면 철서구에 있던 400여개의 이전 공장부지는 상업용 건물과 공업문화유산지역이 되었다.

이처럼 동북지역 국유기업의 개혁이 개혁기 들어선지 25년이 되는 2003년 이후에야 본격화된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위에서 개괄한 철서구의 역사에서 보았듯이 철서구를 포함한 동북지역은 사회주의 중국을 대표하는 실체적 상징적 기반이었다. 실체적 측면에서 보면 동북지역은 사회주의 시기 중국 전체 2차 산업의 4분의 1을 차지하였고 산업의 구성적 측면에서 중화학공업 위주였고 이러한 중대형 국유기업에 소속된 수십만명의 노동자들이 1952년 12월 완공된 “신중국” 최대의 공인촌(工人村)에서 다른 지역의 노동자들보다 확실히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면서 생활했다.

중화학공업 위주의 중대형 국유기업과 “선진적” 노동계급의 공간으로 인식되는 동북지역은 “동방의 루르(東方魯爾)”, “공화국 장비부(共和國裝備部)”, “공화국 공업장자(共和國工業長子)”라고 불리면서 사회주의 중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아이콘으로 존재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주의 중국의 경제적 실체이자 정치적 상징인 동북지역에 대해서 탈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합한 개혁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 말까지 이뤄진 국유기업 개혁도 다른 지역과 부문에 해당되는 것이었고, 동북지역의 개혁은 2003년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위에서 지적한 동북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의미에 더하여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역의 국유기업이 가진 사회정치적(sociopolitical) 의미이다. 개혁기 이전의 중국은 “기업이 사회를 담당한다(企業辦社會)”라고 할 정도로 기업은 그곳에 소속된 노동자에게는 하나의 사회와 같은 역할을 했다. 사회주의 전개과정에서 기업은 중국 특유의 단위제(單位制)가 형성되는데, 단위는 기층당조직과 당안(檔案)을 통해서 단위에 소속된 노동자와 당-국가를 잇는 정치적 역할을 하였고, 주택, 의료, 보험과 기타 육아와 문화활동까지 모두 책임지는 사회경제적 역할을 하였다. 동북지역은 이러한 단위제의 전형성이 두드러진 표출되는 “전형단위제(典型單位制)”가 개혁기에 들어선지 상당기간이 지난 뒤에도 존재하여 노후공업기지 국유기업의 개혁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⁹⁾

상술한 철서구로 대표되는 동북지역 노후공업기지 개조와 노후공업기지의 사회적 성격으로서의 전형단위제를 염두에 두고 이러한 노후공업기지 개조가 가진 공간생산적 측면에 주목하여 2장에서는 공간생산 지식을 투사하는 주체이자 행위자로서의 학계에 대해서 분석해 보자.

9) 동북지역은 2003년 말까지 900개의 국유단위 중대형 중앙기업(中央企業)이 존재했고 이들 중 상당수는 특유의 폐쇄적 성격으로 인해 자원점유의 측면에서는 종종 지방정부보다 우세했고 행정권력의 계통측면에서도 중앙의 관련 부처와 위원회 직속되어 지방정부는 이들 국유기업에 대해서 종종 “약자”의 지위에 처했다. 田毅鵬, 「“典型單位制”的起源和形成」,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2007年第4期. 田毅鵬 漆思, 『“單位社會”的終決—東北老工業基地“典型單位制”背景下的社區建設』, 社會科學出版社, 2005, pp. 40-41.

III. 개혁기 공간생산 지식의 변화와 학계

1. 학술지와 개혁기 공간생산 지식

옌산위(延善玉) 등은 심양시 공업공간의 구조조정과 그 기제에 대한 논문에서¹⁰⁾, 건국 초기 심양의 공업공간은 철서구와 대동구(大東區) 두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가, 개혁기에 들어선 1980년대와 1990년 사이에 심양의 공업공간은 도심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해왔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 도심을 차지하던 공업공간은 2환(二環) 바깥의 교외지역으로 이전해갔으며 기존의 도심 공업공간인 철서구에도 변화가 일어나서 철서구는 심양경제기술개발구와 철서신구로 합병을 하면서 기존의 기업들은 구내(區內)에서 바깥쪽으로 이전해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들은 이러한 사실 조사에 기초해서, 심양시 공업공간 구조조정의 기제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석한다. 첫째, 심양의 공업공간 배치는 중심집중형(中心集中型)에서 주위집중형(周圍集中型)으로 이행하는 과도기 상태인데, 이는 심양의 도시에 위치한 일반적인 가공업과 경쟁력을 상실한 공업기업은 교외로 이전하고 원래의 공업공간은 신산업용지와 거주용지로 조정되어, 제조업 기업의 숫자가 감소하고 도심의 공업생산기능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세계화의 심화와 함께 노동의 국제분업에도 변화가 생겨나서 초국적 기업은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자본과 기술을 투자할 대상으로 교외에 위치한 개발구에 눈을 돌리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철서신구로 확장된 철서구를 들 수 있다. 셋째, 도시 토지사용제도의 개혁인데, 1990년대 이전에는 토지는 당연히 무상사용이고 토지사용권의 양도가 불가능하여 토지의 상품으로서의 기능이 무시되었는데, 1991년 심양시가 토지 유상사용제도를 시작하여 도심에서 공업기업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보다 효율성 높은 3차 산업기업이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넷째, 문화관념의 변화로, 심양이 가진 노후공업기지의 지위를 단지 경제적인 후진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공업문화유산”으로 인식하고 이 유산을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관련시켜 사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개혁기 심양의 노후공업기지의 개조와 관련된 이러한 공간생산 지식은 노후공업기지의 개조의 원인을 변화된 경제체제에 부적합한 산업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동북지역에 조정과 재편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러한 산업구조의 조정과 재편의 전략의 담고 있는 발전모델은 “재공업화(reindustrialization)”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주장하는 “재공업화”는 1차 공업화를 통해서 공업화 기초를 갖춘 경제가 국내외 조건의 변화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된 경우 기술적 제도적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춘 공업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동북지역의 경우 개혁기 이전까지를 1차 공업화로 보고 개혁기에 들어서 노정된 경쟁력 약화의 문제점을 2차 공업화, 즉 “재공업화”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¹¹⁾

“재공업화” 개념은 원래 1980년 미국의 사회학자 아미타이 에트지오니(Amitai Etzioni)가 미국이 1970년대에 성장이 둔화된 것을 두고 그의 논문에서 “재공업화”를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을 추진할 것을 정책적으로 건의한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¹²⁾ 따라서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회경제체제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장기적 경기변동에 따른 산업경쟁

10) 延善玉 張平宇 馬延吉 李蕾, 「瀋陽市工業空間重組及其動力機制」, 『人文地理』, 2007年第3期.

11) “재공업화”를 동북지역 노후공업기지 개조의 핵심적인 발전전략과 모델로 주장하는 대표적인 저서는 程偉 等著, 『東北老工業基地改造與振興研究』, 經濟科學出版社, 2009.

12) Etzioni, Amitai. “The Reindustrialization of America”, Journa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1981, p. 21.

력의 약화에 직면하여 산업구조의 조정과 재편을 통해서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보면 동일한 체제를 전제하고 있는 “재공업화” 개념은 사회주의에서 탈사회주의로 체제 이행기에 있는 중국의 현실을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나아가 노후공업기지 개조를 “재공업화”로 개념화하는 공간생산 지식은, 동북지역 노후공업기지 개조의 문제를 단지 경기변동에 따른 산업구조의 조정과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심양 철서구 노후공업기지의 공간조정(spatial restructuring)을 단순한 “경제적 합리화(economic rationalization)” 과정으로 인식하여, 공간조정이 가진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포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즉, 1장에서 상술한 동북지역 노후공업기지의 “전형단위제”로서의 성격은 이 지역의 중대형 국유기업이 단순한 경제적 차원의 시장 행위자만이 아니라 동북지역 특유의 사회정치적 실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동북지역 노후공업기지의 개조는 단순한 경쟁력 강화가 아닌 체제전환의 관점에서 “전형단위제”가 어떠한 공간조정을 통해 그 사회정치적 의미와 기능이 재구성되는가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2절에서는 1절에서 분석한 철서구 공간생산 지식을 구체적으로 현실에 투사하는 대학기관으로 상하이 동제대학 성시발전전략관리연구원을 살펴보자.

2. 동제대학 성시발전전략관리연구원

성시발전전략관리연구원은 상하이 동제대학 건축성시계획학원(建築與城市規劃學院) 소속의 연구기관이다. 건축성시계획학원은 1952년 동제대학, 세인트 존 대학, 절강대학(浙江大學), 중국미원(中國美院) 등의 건축 관련 학과를 모아서 동제대학에 건축과를 설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개혁기에 들어선 1986년에 건축성시계획학원으로 발전했고, 현재 건축, 성시계획, 경관지리학(景觀地理學)의 3개 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성시발전전략관리연구원은 2000년 7월 설립되었는데, 그 목적은 중국사회의 도시화와 세계화 및 시장경제의 도전에 직면하여 학제적 성격의 연구원을 설립하여 높은 수준의 도시발전전략의 연구와 관리를 위한 인재육성에 있다고 한다.¹³⁾

바꾸어 말하면, 국내적으로는 사회경제적 변화가 심화된 1990년대를 지나고 동북지역을 제외한 국유기업 개혁이 1차적으로 완성된 2000년대에 들어서고, 대외적으로는 2001년 연말에 WTO에 가입함으로써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는 시기에, 급격한 체제전환에 적합한 도시공간의 조정과 재편에 필요한 공간생산 지식을 연구하는 종합적 학술기관이 성립된 것이다.

이 시기 동제대학 성시발전전략관리연구원은 심양시 계획설계연구원과 함께 심양시의 도시발전전략의 밑그림에 해당하는 “「심양성시발전전략계획총보고(瀋陽城市發展戰略規劃總報告)」”(이하, 「보고」)를 제출한다. 아래에서는 이 「보고」에 담겨있는 공간생산 지식의 내용을 분석하도록 한다.

「보고」는 먼저 심양시 도시발전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한 뒤 다음과 같이 6가지의 발전전략의 목표를 제시한다. 첫째, 응집력 있는 도시건설. 이것은 심양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역범위 내에서 다른 도시들과 함께 총체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우선 동북지역에서 투자, 증권, 자본거래 등의 금융 중심이 됨으로써 동북 도시지역 전체의 개혁과정에서 엔진역할을 하고 전통산업에 신기술을 보급하는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요녕성 중남부 지역 도시와의 연대를 강화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심양시 내부의 열악한 자원에

13) 「同濟大學城市發展戰略與管理研究院揭牌成立」, 『城市規劃匯刊』, 2000년4期.

대한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고 도시의 역량을 외부와의 경쟁에 투여하는 의식을 보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성장가능한 도시건설. 근대 이후 심양의 도시발전은 철도를 따라 도시와 공업지역이 분포되었고, 공업공간은 동심원 중심에서 바깥방향으로 발전하여 먼저 생긴 공업공간은 바깥의 공업공간에 의해서 발전을 제약당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심양이 성장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심양시 남쪽 방향으로 발전축을 설정하면 이를 타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혁신도시건설. 전방위적인 혁신을 통해서만이 계획경제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심양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넷째, 효율적 도시건설. 효율적 도시건설의 관건은 바로 토지의 공간이용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합리적으로 토지자원을 배치함으로써 토지의 투입 대비 산출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두 가지는 생태 도시와 거주적합도시의 건설. 특히 도시에 친환경적 거주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내외적 경쟁력을 가진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된 공간생산 지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도시의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혁신을 통해서 친환경적 거주적합도시의 건설을 최종목표로 하는데, 그 구체적인 전략은 심양이 내부적으로는 토지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외부적으로 주변도시와의 산업과 금융의 연계강화를 통해 도시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생산 지식의 의미는 주로 전략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전략으로 제시되는 토지공간의 “효율적” 사용은 도시 내부에서 중심지역과 주변지역 사이에 토지임대료의 차이가 점점 확대되고 이에 따라 「보고」가 주장하는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이 높은 업종과 기업은 중심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비율이 낮은 업종과 기업은 주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개혁기 심양의 도시발전을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도시지역은 1988년 국유토지사용세를 징수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토지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1990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성진국유토지사용권출양화전양잠행조례(中華人民共和國城鎮國有土地使用權出讓和轉讓暫行條例)」가 확정되면서 토지유상사용제도가 확립된다. 따라서 2000년대 초 제출된 「보고」가 주장하는 토지공간의 “효율적” 사용은, 지난 10년 동안 토지사용권 시장의 거래를 통해서 생겨난 중심지역과 주변지역 토지의 사용가격 차이에 주목하여, 두 지역의 시장가격에 적합한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가진 업종과 기업이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토지공간의 “효율적” 사용 주장은, 응집력 있는 도시건설을 위해서 인근 도시와의 수직적 산업금융 클러스터를 형성해야 한다는 전략과 함께 이른바 “입지론(location theory)”의 관점에 입각해있다고 볼 수 있다.¹⁴⁾

이러한 전통적 “산업입지론”에 기초한 공간생산 지식은 공간생산 과정의 성격을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와 경쟁력 강화의 과정으로만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심양의 토지의 “효율적” 사용과 수직적 산업금융 클러스터 구성이 국내외적 경쟁격화와 이윤감소에 직면한 국내외의 자본이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심양 내부와 외부에서 공간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본질적 측면을 놓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산업입지론”의 관점은 단지 경영의 관점에서 노후공업기지 개조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사용과 도시간 수직적 산업금융 클러스터 구성이 의미하는 공간조정이 기존 공간적 노동분업에도 변화를 가져온다는 측면도 보지 못한다.

14) 전통적 입지론은 입지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를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튀넨(Johna Thunen)의 농업입지론(차액지대), 베버(Alfred Weber)의 최소비용이론(운송비), 아우구스트 뢰쉬(August Losch)의 최대수요이론(수요) 등을 나뉜다. Derek Gregory (eds),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Malden, MA: Wiley and Blackwell, 2009, p. 426.

다시 말하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심양 도심의 2차 산업 위주의 국유기업은 주변지역으로 이전되는데, 이는 단지 물리적 공장부지를 교체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의 삶에도 영향을 미쳐서 노동자는 기존의 거주지를 떠나서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가거나 자발적 비자발적 실업을 겪게 되고, 빈자리는 기업과 노동계약을 한 새로운 노동자에 의해서 충원되었다.¹⁵⁾ 이와 함께 기존의 도심의 공장부지는 보다 경쟁력 있는 3차 산업의 기업이나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기업에 의해서 사용됨으로써, 노후공업기지 개조 이전에 도심지역에 중화학공업 위주의 중대형 국유기업과 소속 노동자들의 거주지가 자리잡고 있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경관(landscape)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위에서 보았듯이 공간생산 지식을 투사하는 행위자로서 학계는 한편으로는 학술지 논문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재공업화”를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2000년대 들어서 심양시의 장기적 도시발전계획에 대한 정책보고서인 「보고」를 통해 토지의 “효율적” 사용과 도시 간의 산업금융 클러스터 구성을 제기함으로써, 논문과 「보고」는 모두 철서구 노후공업기지의 개조가 “전형단위제”의 사회정치적 의미의 재구성과 공간적 노동분업의 재편이라는 이른바 “공간조정”의 측면에 대한 지식이라는 측면을 놓치고 있다.

다음 3장에서는 공간생산 지식을 투사하는 주체이자 행위자로서의 당-국가가 주장하는 노후공업기지 개조 전략인 “동반서진”과 “합서관공”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 전략이 가지는 공간생산 지식으로서의 의미를 살펴보자.

IV. 지방정부의 공간생산 지식과 그 전파

1. 노후공업기지 개조의 전략: “동반서진”과 “합서관공”

“동반서진”은 “동쪽에 있는 기업을 서쪽으로 옮겨 짓는다”는 뜻으로 철서구 개조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된다. 철서구 발전계획국 국장과 부국장(副區長)을 역임한 동평(董峰)에 따르면, 모든 것은 “토지로부터 시작되었다”.¹⁶⁾ 그에 따르면, 2002년 철서구는 실업의 도시(下崗之城)로 불릴 정도로 국유기업의 파산과 노동자 해고가 정점에 다른 상황이었고, 철서구의 1100개가 넘는 중대형 국유기업의 자산부채율은 90%에 달했고, 30만명에 달하는 소속 노동자들의 거의 절반이 실업상태로 절망적인 분위기였다. 동년 6월 18일 철서구와 심양기술개발구는 “합서관공”을 실시하여 철서신구(鐵西新區)가 되고 이때부터 철서구 개혁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한다.

“합서관공”은 중국 당정기구 편제조직 형식의 하나로, 두 개의 다른 편제와 직책을 가진 당정 기구가 업무대상과 업무성질이 서로 유사하거나 다른 이유로 동일한 지점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두 기구의 인원과 자원을 상급기관이 융통성 있게 지휘한다.¹⁷⁾ 동평에 따르면, 철서구의 경우 “합서관공”이 이뤄진 후 시급(市級)의 관할권을 보유하게 되고 토지사용권 판매로 인한 수익을 철서구에 유보할 수 있게 되었다. 2001년 심양시 중심지역의 토지사용권은 평방미터 당 2000위안 이상에 달했으나 철서구는 500위안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생산을 멈춘 대형국유기업인 여명모방창(黎明毛紡廠)의 토지사용권을 공개경매의 방식으로 판매하자 예상과 달리 평방미터당 1600위안에 달해, 기존 채무를 해결하고 공

15) 철서구의 중대형 국유기업들은 심양경제기술개발구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그 소속 노동자들은 소유권개혁(企業改制)을 거쳐 “공인(工人)”에서 “직공(職工)”으로 바뀌었다.

16) 「從土地開始的故事」, 『三聯生活週刊』, <http://news.sina.com.cn/c/2007-11-01/110414212070.shtml> (검색일: 2013.3.15).

17) <http://baike.baidu.com/view/1057679.htm> (검색일: 2013.3.10)

장부지 이전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를 제하고도 철서구 정부는 6000만위안의 수익을 거두고, 이때부터 토지사용권을 판매한 수익으로 공장부지를 이전하고 구정부의 재정수익을 확보하는 “동반서건”의 방식은 철서구 노후공업기지 개조의 핵심전략이 되었다.¹⁸⁾

구정부(區政府)의 고위간부인 동평으로 대표되는 철서구 정부가 노후공업기지의 핵심전략으로 취한 “동반서건”은 공간생산 지식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노후공업기지 개조 문제의 관건적인 요소인 재정문제를 이미 형성된 토지사용권 거래시장에서 사용권을 판매함으로써 해결한다는 것이다.¹⁹⁾ 둘째, 이러한 토지사용권 가격의 차이에 의해 확보된 재정수익으로 채무변제와 공장이전은 물론 기업의 구조조정(企業重組)과 소유권개혁(產權改革)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동반서건”의 전략을 기획 추진하고, 다른 지역의 노후공업기지 개조 문제에 하나의 유력한 전략으로 전파하고 있는 주체가 지방정부라는 것이다. 특히 동평은 철서구 노후공업기지 개조에 관한 논문에서 철서구 모델의 “성공”은 일정정도의 대표성과 보편성을 가진다고 지적하며, 동북지역에서 적어도 하얼빈(哈爾濱), 치치하얼(齊齊哈爾), 길림(吉林), 안산(鞍山)과 심양 철서구와 같은 대표적 노후공업기지는 상호 유사한 정책환경에서 지방정부가 기획하고 추진한 기제와 제도가 노후공업기지 개조와 발전의 주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²⁰⁾

공간생산 지식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우선, 토지사용권을 매각하여 자본을 마련하고 공장이전을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과 소유권 제도개혁까지 해결하는 것은 “공간이전(spatial displacement)”을 통해서 “자본축적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²¹⁾ 즉 노후공업기지 국유기업 개혁의 전략이 표면적으로는 토지사용가격의 차이를 이용하여 기업의 채무해결,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확보, 이전비용 충당이라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노후공업기지가 경제적 실체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중국을 대표하는 사회정치적 실체였다는 점을 상기하면, “자본축적의 위기”는 단지 경제적 접근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동반서건” 전략은 본질적으로는 “공간이전”을 통해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소유권 제도개혁의 형식을 통해서 동북지역에 강고하게 자리잡은 “전형단위제”를 해체하고 “사구(社區)”를 건설함으로써 탈사회주의 시기 시장경제에 적합한 사회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²²⁾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당정 고위간부 동평의 인터뷰와 논문에서 중시되는 “합서관공”의 문제이다. “합서관공”도 “동반서건” 전략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행정적 효율을 제고하

18) 「從土地開始的故事」, 『三聯生活週刊』, 2007年11月1日, 41期.

19) 물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철서구가 심양시 전체에서 비교적 먼저 발달한 지역이 화평구(和平區)에 바로 인접해있고 화평구가 서탑가(西塔街) 등의 상업중심지가 발달할 때도 철서구는 여전히 노후공업기지로써 존재했기 때문에, 토지사용권 거래가 허용된 지 이미 10년째가 되는 2001년이 되면 철서구의 상업지구로서의 잠재적 가치는 이미 상당히 증가한 상황 때문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20) 董峰, 「從鐵西模式看地方基層政府職能轉變」, 『中國經濟導刊』, 2009年第6期, pp. 16-17.

21) 하비(David Harvey)는 자신의 저서에서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필연적으로 과잉축적을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리적 팽창을 통해 초과자본 및 초과노동을 흡수하는 것을 “공간이전”이라고 개념화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주도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적 금융적 군사적 권력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한다(Harvey, David.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1991을 참고). 물론 철서구의 경우 과잉축적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자본축적의 위기에 직면하여 기존 공간을 벗어나서 다른 공간으로 옮겨가거나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위기를 탈출하려는 측면에서 “공간이전”이란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22) 따라서 “사구”건설은 이전에 “기업(=단위)이 사회를 담당하던” 것을 “사구가 사회를 담당하는(社區辦社會)”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사구는 기존 단위가 담당하던 사회정치적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田毅鵬 漆思, 2005, p.67.

기 위해서 진행한 행정편제 조정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그가 주장하는 “합서관공”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행정적으로 분리된 두개의 구를 합쳐서 하나의 지방정부의 지휘 하에 두고 해당 지역의 정치적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전면적 관할권을 부여함으로써 노후공업기지의 개조에 효율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간생산 지식은 “합서관공”을 단지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적 편제의 조정과 효율화로 인식하게 하여, 변화된 국내외적 상황에 맞추어 지방정부가 자신의 성격을 사회주의 시기 정치적 관리자에서 시장경제에서의 경제적 행위자로 능동적으로 전환시켜가는 측면을 놓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철서구 노후공업기지 개조과정에서 동원된 “합서관공”의 전략을 중국의 지방정부가 “기업가 정부(entrepreneurial government)”로서의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로 인식해야 비로소 동북지역 노후공업기지의 개조가 다른 외국처럼 경쟁력 약화에 처한 산업의 구조조정의 과정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능동적 주도로 노후공업기지에 대한 사회정치적 실체의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가 정부란 1980년대 이후 심화된 국제적인 경쟁에 적응하기 위해 지방도시의 정부의 정책목표가 해당 지역에 복지와 서비스를 제공하던 전통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서, 기업가 정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공공관리부문을 개혁하고 해당 지방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에 자신의 최우선적 정책목표를 둠으로써, 원래 기업가의 속성인 모험, 혁신, 이윤동기 등의 기업가 정신에 기초한 지방도시정부가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²³⁾ 중국의 경우, 개혁기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정부가 특히 토지와 같은 도시공간의 자원에 대한 독점적 행정권한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결과 도시공간의 개조가 기업가적 성격이 농후한 지방정부에 의해서 주도되는 경향이 강하다.²⁴⁾

이상 살펴보았듯이 철서구 당정 고위지도자의 인터뷰와 논문 분석에 드러나는 철서구 노후공업기지 개조의 전략인 “동반서건”, “합서관공”에 관한 공간생산 지식은 기업의 경제적 효율 제고를 위해 행정적 편제를 조정하여 공장부지를 이전하여 재정적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이 두 가지 전략은 본질적으로 국내외적 조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기업가적 지방정부의 능동적 주도로 사회주의 시기의 사회정치적 실체인 중대형 국유기업의 “전형단위제”를 “공간이전”의 방식을 통해서 탈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합한 사구로 변화시켜가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2절에서는 위에서 분석한 “동반서건”과 “합서관공”의 전략이라는 공간생산 지식을 철서구 정부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전파해 나가는 과정을 분석한다.

2. 지방정부의 공간생산 지식 전파

논자들에 의하면 철서구 노후공업기지 개조 모델(이하, 철서모델)에서 정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철서구 정부는 국유기업의 대규모 도산, 노동자의 대규모 실업의 위기에 직면하여 행정관리기능을 발휘하여 “동반서건” 전략을 수립하고 많은 기업들을 곤경에서 구출해냈는데, 이러한 철거이전의 과정은 “정부주도”에서 “시장주도”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것이다.²⁵⁾ 이것은 정부가 기존의 계획기제가 아니라 시장기제에 의해서 “동반서건” 전략을 추진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정부의 역할변화와 “동반서건” 및 “합서관공” 전략은 철서구 노후공업기지 개조의 중요한 경험으로 인식되어 유사한 상황에 처한 요녕성 내의 노후공업기

23) Harvey, David. "From Managerialism to Entrepreneurialism",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Vol. 71, No. 1, 1989.

24) 張京祥 殷潔 羅小龍, 「地方政府企業化主導下的城市空間發展與演化研究」, 『人文地理』, 2006年第4期.

25) 仲曉宏, 「從政府主導到市場主導」, 『遼寧經濟管理幹部學院學報』, 2010年第1期, p. 5.

지, 동북지역의 노후공업기지, 전국적인 범위의 노후공업기지의 개조에 전파되고 공유된다.

철서구의 노후공업기지 개조경험은 정부역할과 전략이란 측면에서 “철서모델”로 개념화되어 몇 가지 방식으로 전파되고 공유되고 있다. 첫째, 국무원 국가발전계획위원회(國家發展和計劃委員會) 산하의 동북진흥사가 직접 조사연구단을 파견하여 “철서모델”에 대해서 경험을 조사연구하는 방식이다. 동북진흥사는 동북지역으로 대표되는 노후공업기지 개조에 관장하는 국가 최상급의 기관으로 철서구의 경험을 다른 지역에 적용해볼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이다.²⁶⁾ 실제로 동북진흥사의 홈페이지에는 그 구체적인 직책 중 하나로 “전국노후공업기지”의 개조와 진흥이 포함되어있어 동북지역의 노후공업기지의 개조와 진흥에 관한 전략과 정책이 다른 지역의 노후공업기지의 개조에도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⁷⁾ 또한 2009년 9월 23일 국무원 총리가 원자바오가 주재한 토론회를 거친 후, 「촉진중부지구굴기계획(促進中部地區崛起規劃)」이 정식 통과되었는데, 이 「계획」의 “계획중점(規劃重點)”에도 노후공업기지의 진흥이 명시되어있다. 둘째, 철서구와 다른 성 사이에 당정협의회(黨政協議會)나 당정고찰단(黨政考察團)의 형식으로 철서구 노후공업기지의 개조 경험을 전파하는 것이다.²⁸⁾ 셋째, 요녕성 내에서 철서구의 경험을 당정협의회나 당정고찰단의 형식으로 전파하는 방식이다.²⁹⁾ 이렇게 동북지역과 철서구의 노후공업기지 개조의 경험을 전파하고 교류하는 방식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그 전파와 교류의 내용은 정부역할과 개조전략으로 요약된다.

V. 연구기관의 공간생산 지식

1. 심양시 계획설계연구원

심양시 계획설계연구원은 1960년 5월 설립된 심양시 계획국토자원국(規劃和國土資源局) 소속 전문 도시계획 및 설계연구원으로 성급과 시급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기획하는 연구기관이다. 이 연구원은 업무영역은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건축공정설계 등에 이르고 해당분야에 국가 갑급(甲級) 자격을 가지고 있다.³⁰⁾ 계획설계연구원은 2002년 2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철서구와 관련된 프로젝트로 각종 수상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1)³¹⁾

26) 2006년 6월 내몽고(內蒙古) 적봉(赤峰)에서는 동북지역진흥계획의 성과 교류회가 열려 산업구조와 기업개조 문제에 관해 경험을 교류하였다. http://chinaneast.xinhuanet.com/2006-07/11/content_7488537.htm (검색일: 2013.3.11)

27) <http://dbzxs.ndrc.gov.cn/zyznjnsjg/default.html> (검색일: 2013.3.9)

28) 2008년 6월 광둥성(廣東省) 동완시(東莞市) 장안진(長安鎮)의 당정간부들이 철서구를 방문하여 노후공업기지 개조 경험을 교류하였다. http://www.sun0769.com/news/town/t20080620_382276.shtml (검색일: 2013.3.8)

29) 2012년 2월 요녕성 요양시(遼陽市) 태자하구(太子河區) 간부들이 철서구를 방문하여 노후공업기지 개조에 관한 경험을 교류하였다. <http://www.mxwz.com/city/view.aspx?CID=1&ID=1118366> (검색일: 2013.3.10) 특히, 2002년에 철서구 당위원회 서기와 구장(區長)을 역임한 구춘리는 2006년부터 요녕성 안산시(鞍山市) 당위원회 서기와 시장을 역임하고 있는데, 안산시 철서구(鐵西區) 노후공업기지의 개조에 심양 철서구의 “동반서진” 전략을 이용할 것을 강조한다. <http://news.sina.com.cn/c/2008-01-03/082013189399s.shtml> (검색일: 2013.3.11)

30) 심양시 계획설계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syup1960.com> (검색일: 2013.3.14).

연도	항목
2002년 2월	瀋陽市鐵西區城市建設與發展規劃研究
2002년 4월	瀋陽市鐵西區工業區改造規劃
2003년 12월	瀋陽市鐵西區工業區改造規劃諮詢
2004년 3월	鐵西區工人村地區改造規劃
2005년 6월	瀋陽鐵西百貨大樓有限公司營業樓
2006년 1월, 9월	瀋陽鐵西新區城市發展規劃-東北老工業基地改造實例(合作,實施部分)

윗 표에서 보이듯이 심양시 기획설계연구원은 철서구와 심양경제기술개발구가 합치는 “합서관공”이 이뤄지는 2002년 6월 이전부터, 심양트랙터공장(瀋陽托拉機廠)이 철서구 최초로 “동반서진” 하는 2003년 7월, 동북진흥정책이 본격화되는 2004년을 거친 후인 2006년까지 철서구 개조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기획했다.

썹크탱크 집단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주쉬핑에 따르면 마오쩌둥 시기 정책결정 과정은 정치지도자나 행정간부에게만 개방되어있었으나 개혁기에 들어서 특히 1986년 이후 사회의 각계각층의 엘리트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³²⁾ 특히 “비즈니스 엘리트”들이 경제성장에 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 공산당 내에 기반을 갖추게 되었고,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사회의 지식-기술 엘리트들이 서서히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몇몇 지역들에서는 이들은 이미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이 “과학적” 정책을 입안하는데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제안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요녕성이라는 것이다.³³⁾ 이렇게 보면 기획설계연구원은 철서구의 개조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기획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썹크탱크로서 지방정부의 노후공업기지의 개조 정책설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음의 2절에서는 이들이 제시한 “과학적” 정책인 「심양철서신구전략발전기획연구」를 공간생산 지식의 측면에서 분석해보자.

2. 「심양철서신구전략발전기획연구」

기획설계연구원이 기획하고 입안한 철서구 개조 관련 여러 프로젝트는 「심양철서신구전략발전기획연구」(이하, 「연구」)로 집약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는 철서신구를 기존의 철서구와 심양기술개발구로 나뉘서, 심양기술개발구는 장비제조업과 관련 재료산업 및 금융과 연구개발 중심지역으로 성장시키고, 철서구는 현대적인 비즈니스와 생활 및 서비스산업 지역으로 성장시키고 이 지역에는 새로운 공업기업은 금지하고 기존 기업은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심양기술개발구 지역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동시에 심양기술개발구도 단순히 기존 기업이 이전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신기술(高新技術) 위주의 보다 효율적인 산업클러스터를 형성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셋째, 정부 직

31) 심양시 기획설계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syup1960.com/fanan.aspx?columnid=5> (검색일: 2013.3.16).

32) 개혁기 이전 정책연구기관은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했고, 소속 전문가들의 정책연구결과는 공산당과 정부의 입장과 언제나 일치해야 했다. 개혁기에 들어선 1980년대에 정부정책결정에 중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존재로서 정부소속 연구기관은 양적 질적 발전을 보였고, 비정부소속의 연구기관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1980년대 동안 상대적인 이데올로기적 자유를 누리다가 1989년 천안문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이데올로기 영역의 통제가 강화되자 침묵하게 된다. 그 후, 연구기관들은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를 계기로 다시 정부정책에 의견을 내놓기 시작하고 이들 중 일부는 관료로서 정부부문에 들어가기도 하고, 동시에 비정부소속의 연구기관도 다시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Zhu, Xufeng. The Rise of Think Tanks in China, New York, NY: Routledge, 2013, pp. 25-29.

33) Zhu, Xufeng. pp. 135-37.

능에 “경영” 개념을 도입하여 토지자원과 도시기능을 자본화 및 효율화하여, 계획이 아닌 시장기제를 철서신구 건설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기존 철서구에 있던 공업 유산을 활용해서 공업문명거리를 만들어서 심양공업문명의 휘황한 과거를 기억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양시 계획설계연구원이 투사하는 이와 같은 공간생산 지식은 2장에서 학계가 주장하는 “재공업화”와 금융산업 도시클러스터, 3장에서 지방정부가 주장하는 “동반서진”과 “합서관공”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과 소유권개혁과 기본적으로 대동소이하지만, 공업문명유산에 대한 강조는 학계와 지방정부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이다.

철서구의 공업문명유산을 휘황한 과거로 인식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는 계획설계연구원의 공간생산 지식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이해된다. 첫째, 심양경제기술개발구와 합병을 통해서 철서신구로 된 이상 기존의 철서구는 더 이상 공업기업이 밀집된 지역은 아니고, 위에서 본 것처럼 거주, 서비스 및 비즈니스를 위한 지역으로 상정된다. 그래서 기존의 공장들은 심양경제기술개발구로 이전해가지만 “공화국장비부”라고 불릴 정도로 공업경제가 번영했던 과거의 공업문명의 기억들은 보존해서 새로운 시대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철서신구가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를 통해서 3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철서구는 서비스 산업 위주로 재편하고 기업들이 옮겨간 심양경제기술개발구는 “재공업화”를 통해서 높은 기술수준과 효율을 가진 선진공업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역할분담”에서 기존의 공업문명의 유산은 폐기해야 할 비효율이 아니고 오히려 철서(신)구의 새로운 “재공업화”를 위한 문화적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생산 지식은 “심양증기기관차박물관(瀋陽蒸氣機車博物館)”이나 “심양주조박물관(瀋陽鑄造博物館)”의 건설로 현실화되는데, 이들 박물관은 모두 철서구의 휘황한 역사를 대변하는 일종의 “공간서사” 혹은 “서사의 공간”라고 볼 수 있다.³⁴⁾

둘째, 심양시 계획설계연구원의 공간생산 지식, 즉 공업문명유산의 보존과 활용의 논리는 철서구의 공장건물에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던 공인촌도 그 대상이 된다. “아랫집 윗집 모두 전등 전화(樓上樓下 電燈電話)”라고 할 정도로 전국의 공인촌 중에서도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선진” 노동자들이 거주하던 철서구 공인촌은 2003년부터 철거가 시작되는데 철거 이후에도 공인촌 건물의 일부를 남겨서 “공인촌생활관(工人村生活館)”으로 바꿔 노동자들의 예전 생활상을 재현해 놓고 있다.³⁵⁾ 동시에 철서구 노후공업기지 개조에 즈음하여 퇴직한 노동자들을 위해 노동모범아파트(勞動模範樓)를 짓고 내부자 가격으로 저가에 구입할 수 있게 하고 나중에 시장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하여 경제적으로 큰 혜택을 준다.³⁶⁾

이렇게 사회주의 중국을 대표하던 기존 대규모 공인촌은 사라지고 소수의 퇴직자들을 위한 노동모범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공인촌의 역사는 “옛 노동모범(老勞模)”의 공간으로 해석

34) 이러한 박물관들과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심양철서창의산업중심(瀋陽鐵西創意產業中心)”인데, “창의산업중심”은 종종 노후공업기지 개조에 있어서 일종의 미래의 대안산업으로 거론된다. 이렇게 보면 박물관들이 과거 역사에 대한 공간생산 지식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창의산업중심”은 철서구의 미래에 대한 공간생산 지식을 시각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張春梅 薛麗敏, 「優化產業構造 發展文化創意產業」, 『黨政幹部學刊』, 2010年第10期.

35) 瀋陽市鐵西區檔案局, 『鐵西歷史上的今天』, 2009.

36) 遼瀋北國網, 「瀋陽有座勞模樓」 http://www.dzwww.com/rollnews/news/201008/t20100812_6531675.htm (검색일: 2013.3.10)

되는데, 공업문명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공간생산 지식은 공인촌의 미래를 시장경제 시대의 “새로운 노동모범(新勞模)”의 공간으로 보고 과거 계획경제 시대의 철서구 공인촌 노동자들이 “공화국의 장자”로서 “신중국” 건설의 영도계급이었던 것처럼 미래에도 당의 지도에 따라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노동모범이 되기를 요구한다.³⁷⁾

정리하면, 심양시 기획설계연구원의 노후공업기지의 공업문명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공간생산 지식은 기존 철서구의 공업문명의 유산을 폐기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말고 향후 철서신구가 나아갈 “재공업화”에 필요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과거의 노동모범을 계승한 새로운 노동모범들이 과거처럼 영도계급이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가적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합서관공”이라는 공간조정과 “동반서진”이라는 공간이전으로 철서구 노동자들을 지위와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개혁기의 공간생산이 이뤄졌지만, 철서구의 노동자는 여전히 전국범위의 노동모범으로 공산당의 지도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윤창출을 최대의 목적으로 하는 시장경제가 공간생산의 기제가 되었지만, 예전 사회주의 시기 영도계급이었던 노동자가 여전히 새로운 철서구를 건설하는 선봉이 되어야 한다는 공간생산 지식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심양시 기획설계연구원은 지방정부소속 연구기관으로서 철서구 노후공업기지 개조에 대한 공간생산 지식을 투사하는데 있어서 2장과 3장에서 분석한 학계 및 지방정부와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더하여, “공화국장비부”로서의 과거의 휘황한 공업문명을 계승하여 미래의 새로운 공업발전의 문화적 자원으로 삼고 철서구의 노동자들은 전국적인 노동모범으로서 시장경제 시대 영도계급이 될 것을 주장한다.

VI. 결론

철서구는 러일전쟁 승리 후 일본이 만주에서 러시아의 이권을 획득하고 심양에 군수공업과 중화학공업 중심의 공장지역을 건설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로는 줄곧, 1950년대 초반 소련의 원조를 받아서 사회주의 중국 건설의 중요한 공업기반이 된 동북지역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이었고, 중화학공업 중심의 중대형 국유기업과 그 소속 노동자로 상징되는 사회주의 중국의 대표로서의 위상을 개혁기 초기인 1980년대까지도 유지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도, 동북지역은 중국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실체적 상징적 위상과 이 지역 특유의 전형단위제로 인해 개혁기에 들어서도 2000년대 초반까지 본격적인 개조가 이뤄지지 못하다가, 2003년 국무원에서 동북진흥책이 공식통과되고 영도소조가 조직된 이후 비로소 본격적인 동북지역 노후공업기지 개조가 시작되었다. 심양시는 1991년부터 토지사용권을 매매할 수 있게 되었으나, 동북진흥책이 본격 추진되면서부터 비로소 대표적 노후공업기지인 심양시 철서구도 공간생산을 통해 노후공업기지 개조를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이 마련된다.

철서구의 노후공업기지 개조에 대한 공간생산 지식을 투사하는 주체는 학계, 지방정부, 연구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은 공간생산에 관한 지식을 만들어 내면서 동시에 직접 공간생산을 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학계는 기본적으로 노후공업기지의 개조를 변화된 경제체제에 부적합한 산업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로 보고, 산업구조의 조정과 재편을 목적으로 하는 “재공업화”를 발전모델로 내놓는데, 이러한 공간생산 지식은 노후공업기지의 개조를 “경제적 합리화”의 문제로만 인

37) 「鐵西區勞模樓的來歷」, 『瀋陽致公』, 2009년3期.

식하고 노후공업기지의 개조가 동북지역 특유의 전형단위제를 해체하고 체제전환에 걸맞는 사회정치적 실체를 창출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무시한다. 또한 상하이 동제대학의 성시발전전략관리연구원은 심양의 도시발전전략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이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산업입지론에 기초하여 심양의 노후공업기지 개조를 경제적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의 과정으로만 인식하고 있어서, 노후공업기지의 개조가 철거이전이라는 공간이전을 통해서 공간적 노동분업을 재편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보지 못한다.

동북진흥책이 본격 추진되는 2004년을 전후한 몇 년 동안 심양시와 철서구의 당정 고위 간부를 담당한 동평과 구춘리의 인터뷰와 논문들을 보면 당시 이미 형성된 토지사용권 매매 시장에서 철서구의 토지사용권을 매각하여 거둔 재정수익으로 노후공업기지의 개조에 소요되는 재정지출을 모두 해결했다는 “동반서진”이 노후공업기지 개조의 핵심전략으로 제시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동반서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철서구와 심양경제기술개발구를 합치는 “합서판공”이 사전에 이뤄지는데, 이 두 가지 전략은 철서모델로 개념화되어 동평과 구춘리 등의 간부들을 통해서 다른 노후공업기지의 개조에 “모범적 사례”로 제시된다. 그런데 여기서 공간생산 지식은 이 두 전략을 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적 편제를 조정하여 공장부지를 이전하여 재정수익을 확보하는 것으로 인식하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기업가적 성격의 지방정부가 “공간이전”과 “공간조정”을 통해 능동적으로 앞서 언급한 전형단위제를 사구로 변화시켜나가는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그 개조경험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국, 동북지역, 성내(省内)에서 전파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기관인 심양시 계획설계연구원은 철서구 노후공업기지의 개조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철서구의 개조와 관련된 정책프로젝트를 수주하고 그 연구결과를 제출하는데, 그 내용은 학계와 지방정부가 투사하는 공간생산 지식과 유사하다. 즉, 계획설계연구원은 “재공업화”와 금융산업 도시클러스터 및 “동반서진”과 “합서판공” 전략을 제출하면서, 동시에 공업문명유산을 계승하고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여기서 공업문명유산은 두 가지로 활용되는데 하나는 미래지향적 새로운 공업도시 건설에 있어서 역사적 문화적 자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표현은 박물관이다. 나머지 하나는 노동자들이 집단 거주하던 공인촌을 사회주의 시기 노동모범의 공간으로 해석하고 현재와 미래의 시장경제에서도 공인촌은 새로운 노동모범의 공간으로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공산당의 지도를 받아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영도계급이 될 것을 주장하는 공간생산 지식이다.

이상에서 정리한 철서구 노후공업기지의 개조에 대한 학계, 지방정부, 연구기관의 공간생산 지식의 내용과 지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경제에 적응하기 위한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와 국유기업 개혁의 추진이 노후공업기지 개조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앞서 본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관점은 노후공업기지의 개조는 이 지역 특유의 사회정치적 실체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라는 점, 즉 동북지역 특유의 전형단위제를 해체하고 사구를 건설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둘째, 이들이 투사하는 공간생산 지식들은 연구기관인 심양계획설계연구원이 공업문명유산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을 제외하면 대동소이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노후공업기지의 개조에 대한 공간생산 지식이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확산되는 경로에서 이들 주체들이 유사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본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노후공업기지의 개조라는 의제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동북진흥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제기되었고, 중앙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화답하여 지방정부에서 현지상황에 맞는 “동반서진”과 “합서판공”이라는 구체적인 개조전략을 내놓았고,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학계와 연구기관

에서 개조전략에 대한 좀 더 거시적인 밑그림을 내놓았으며,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델화된 공간생산 지식은 주로 당과 정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 전파되는 것이다. 즉, 철서구의 사례에서 살펴본 개혁기 노후공업기지의 개조에 대한 공간생산 지식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거시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현지상황에 적합한 구체적인 전략을 현실에 투사하는 방식이므로, 지방정부가 기본적인 구상을 하고 여기에 학계와 연구기관이 이론적 프레임틀을 제시한 후 현실에 적용하여 그 실효성이 검증되면 그때 비로소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러한 공간생산 지식을 전파 교류하는 방식이다.

셋째, 이와 더불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앞서 지적한 지방정부의 “기업가 정부”적인 성격이다. 공공관리보다는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에 최우선적인 정책목표를 두는 것은 개혁기에 들어서 중국의 지방정부가 획득하게 된 중요한 특징인데, 중국은 도시지역은 이념적으로 토지의 국가소유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사실상의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방정부이며, 지방정부는 토지사용권의 거래라는 방법을 통해서 토지소유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토지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한, 중국에서의 공간생산은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고, 공간생산 지식을 투사하는 학계나 연구기관 같은 다른 주체들은 이론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넷째,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노후공업기지 개조에 대한 공간생산 지식의 전파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바로 위에서 지적한 지방정부의 토지자원 독점권으로 인해 어느 지역의 공간생산 지식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때 최종적으로 그 지식을 활용하여 공간생산을 진행하는 주체가 바로 그 지역의 지방정부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이 논문에서는 우선 개혁기 심양시 철서구의 노후공업기지 개조 방식의 특징을 공간생산으로 규정하고, 공간생산 지식의 내용과 지형의 분석에 집중하여 지식을 투사하는 주체인 학계, 지방정부, 연구기관을 살펴보았다. 한편 공간생산 지식의 전파와 교류라는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의 동북진흥사와 지방정부가 주도의 전파와 교류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파악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학계와 연구기관들 사이는 물론 중앙과 지방정부와 이들 사이에 발생하는 전파와 교류까지 분석하여 공간생산 지식의 전파와 교류를 둘러싼 이들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심도있게 그려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더하여 4장에서 본 것처럼 연구기관에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비즈니스 엘리트”들이 “과학”의 이름으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엘리트들과 직간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부동산 개발 관련 기업을 또 하나의 공간생산 지식의 주체로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상정한 주체들에 더하여 기업이 투사하는 공간생산 지식과 기존 주체들과의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것도 향후의 과제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남주, 「차이의 공간을 꿈꾸며: 『공간의 생산』과 실천」, 『공간과 사회』, 2000년 통권14호
 앙리 르페브르 지음,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Etzioni, Amitai. “The Reindustrialization of America”, Journa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1981,
 Harvey, David. "From Managerialism to Entrepreneurialism",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Vol. 71, No. 1, 1989
 Harvey, David.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1991
 Derek Gregory (eds),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Malden, MA: Wiley and Blackwell,

- 2009
- Lefebvre, Henri., Nicholson-Smith, Donald. *The Production of Space*,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1992
- Zhu, Xufeng. *The Rise of Think Tanks in China*, New York, NY: Routledge, 2013
- 工人村(www.gongrencun.com)
- 董峰,「從鐵西模式看地方基層政府職能轉變」,『中國經濟導刊』,2009年 第6期
- 東北振興司(<http://dbzxs.ndrc.gov.cn>)
- 「同濟大學城市發展戰略與管理研究院揭牌成立」,『城市規劃匯刊』,2000年 4期.
- 仲曉宏,「從政府主導到市場主導」,『遼寧經濟管理幹部學院學報』,2010年 第1期
- 百度百科(<http://baike.baidu.com/>)
- 『三聯生活週刊』
- 瀋陽市規劃設計研究院(<http://www.syup1960.com>)
- 瀋陽市鐵西區檔案局,『鐵西歷史上的今天』
- 延善玉 張平宇 馬延吉 李蕾,「瀋陽市工業空間重組及其動力機制」,『人文地理』,2007年 第3期
- 葉超 柴彥威 張小林,「“空間的生產”理論研究進展及其對中國城市研究的啓示」,『經濟地理』,2011年 3月
- 遼瀋北國網(<http://www.dzwww.com/>)
- 魏立華 閔小培,「有關“社會主義轉形國家”城市社會空間的研究述評」,『人文地理』,2006年 4期
- 魏偉,「政治經濟學視覺下的中國城市研究:資本擴張空間分化和都市運動」,『社會』,2007年 2月
- 李翔,『共和國記憶60年:成長地標』,中信出版社,2009
- 李向平 王希文 陳萍 等,『通向復興之路:東北老工業基地振興政策研究』,社會科學文獻出版社,2008
- 任平,「空間的正義:當代中國可持續城市化的基本走向」,『城市發展研究』,2006年 5期
- 張京祥 殷潔 羅小龍,「地方政府企業化主導下的城市空間發展與演化研究」,『人文地理』,2006年 第4期
- 張春梅 薛麗敏,「優化產業構造 發展文化創意產業」,『黨政幹部學刊』,2010年 第10期.
- 田毅鵬,「“典型單位制”的起源和形成」,『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2007年 第4期,
- 田毅鵬 漆思,『“單位社會”的終決:東北老工業基地“典型單位制”背景下的社區建設』,社會科學出版社,2005,
- 程偉 等著,『東北老工業基地改造與振興研究』,2009,經濟科學出版社.
- 『中國城市統計年鑑』,國家統計局,2001年,2002年
- 振興東北(<http://chinaneast.xinhuanet.com>)
- 「鐵西區勞模樓的來歷」,『瀋陽致公』,2009年 3期